

2027

수능 국어

-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 수능특강 전 작품 수록

더아 연계 문학 분석 집 수능 특강 전 작품 수록

고전산문

-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와 연계하여 2027학년도 수능 문학 완벽 대비
- ✓ 2027학년도 수특 고전산문 전 작품 및 기출(수능·모평·학평) 전 문항 수록
- ✓ 2026학년도 수능의 EBS 연계 경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방향 제시
- ✓ 심도 있는 분석과 친절한 해설로 자기 주도 학습 가능

박광일 지음

혼자서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수험생을 위한 강의

박광일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

[고전산문] EBS 연계 학습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강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EBS 연계 문학 강의 [바로 보기]

EBS 연계 문학 작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에게



훈련도감-E 수특정복 고전산문이 답인 이유!

1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 완성

EBS 연계 교재의 출제 요소와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핵심 출제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작품 해설과,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랜을 통해 이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 분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고전산문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최신 수능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석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과 함께하면 **좋은 점**



첫째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학습 가능

EBS 연계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박광일 선생님이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문학 전 작품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심도 있게, 출제 가능성이 낮은 작품은 핵심만 짚어 강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강의를 따라오면 어느새 EBS 연계 학습 완료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 강의를 통해 작품별 학습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EBS 학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포인트를 도식화하여
학습 효율성 극대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전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출제 요소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 수록**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했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원리를 익히고 실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이투스(<https://www.etoos.com>)
박광일 선생님의 Q&A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구성과 특징

작품 핵심 키워드

작품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제목 아래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서 작품의 핵심 출제 요소를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품 간추려 읽기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간추려 수록하였습니다. 작품의 흐름과 주요 인물, 인물 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BS 연계 교재 수록 및 기출 출제 부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장면 풀어 읽기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장면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출제 포인트를 고려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나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E 미수록 장면 요약

EBS 연계 교재에 생략된 부분 혹은 해당 장면과 인과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을 간결하게 수록하여 EBS 연계 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합니다.

E 장면 돌보기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장면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문제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어체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01

작자 미상, 임진록

[KEYWORD] #임진왜란 #역사적 사실+허구적 인물 제시 #4당만 일본 존재

E 장면 풀어 읽기

이유로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수레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 보. 나는 본래 육체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오. (자신의 정체를 밝힌 / 비탄적인 인물(노인)에게 용왕의 아들과 인연(수레)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상황)

이렇게 산 것도 벌써 천 년이 넘었소.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남았는데, 불행히도 이 장에 사는 삼천 년 묵은 구미호가 내 몸을 빼앗으려 하고 있소. (관객의 행동 요점을 논 제재법)

옛날 동안 일정을 벌였지만,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수레를 (귀신같은 활 솜씨) (인물-활수레) (신비) (비탄) (충격)을 좀 벌였으면 하오, 나할 중 도와 달라고 수레를 이런 공백한 땅(산)에 모셔 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소이다."

수레가 물러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초세의 천한 사람(강준)에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 (1)이고 선생(노인)에게선 용공의 귀한 어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었습니까? 게다가 (2) 저는 원래 아무 계주가 없는 사람(노인)인데(강준)에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 (2) 어찌 감히 선생의 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수레가 신궁(인간) 같은 것이라는 뜻으로, 불을 켜 주는 사람을 이르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늘, 겸손이 지나치시군요. 모래가 구미호와 싸우기로 한 날이요, 수레께서는 한면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협한 처지에서 구해 주시게 바라오."

"선생의 말씀이 이리하니 어찌 감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활동이 없고 화상도 없으니 어찌든 좋겠습니까?" 노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자, 활과 화살이 있는 성불을 직행했다.

"분명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 (노인은 활수레가 언제 올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일은 열려 마시오."

노인이 하고 미안(간직)한 고백(1)이 들려왔다. 수레는 잠에 들어떨어져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노인이 일어나서 활과 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 (노인은 활수레가 언제 올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일은 열려 마시오."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 E1 '말이'와 '잡고'를 반복하고 음식과 동물을 나열하며 큰 잔치를 열어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을 격려하려는 조조의 행동을 부각함

• E2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

남이	노인이 수레에게
아무런 말	도움 요청함
일문	노인의 요청을 수레가 수차례 들어 줌
다들	인간의 모습을 한 구미호를 쫓
오후	구미호를 쫓
이름	마포(구미호)는 새는 구미호를 쫓 못함

• E3 노인은 구미호를 몰아가기 위해 수레의 도움이 필요하여 그를 성에 남겨 놓았음

• E4 '늙은이'의 천한 사람, 아무 계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수레의 겸손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E5 노인의 대항을 위해 구미호가 출현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중 소리', '묵소리', '미미 소리'와 같은 다양한 소리를 나열하여 서사감

• E6 구미호에 대한 수레의 반응

반	선생의 용언, 화를 면하려 함
어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자태를 가져다 줌
↓	
구미호의 눈매와 외모에 크게 놀음	

E 장면 돌보기

조조가 적벽강에 불을 태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큰 전쟁을 앞두고 있던 조조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 보여,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신하 유표가 조조에게 고만함을 엿볼 수 있지, 이때 까마귀가 불길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그러자 조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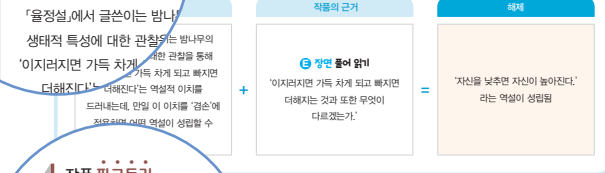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 E는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적절한 선지를 정리한 것으로, 연계 교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α는 EBS 연계 교재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근거가 되는 구절 바로 옆에 수록하였습니다.

EBS <보기>의 공식

<보기>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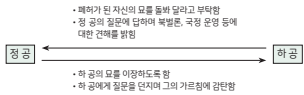
작품 파고들기

• 「올정설」에 나타난 백문보의 세계관
 답안 백문보는 15세라는 이른 나이에 친우인 윤택에게 지어 준 「올정설」에 대한 연구서인 「역설적 이치」를 환유적으로 체계화한 「주역」에 관한 조제가 있었다. 그가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나이고 물이 축적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상 간격이 없다는 「물이지우문」 사상이다. 이는 「주역」의 간격에 나오는 말이다. 백문보는 「주역」에서 이 말을 끌어와, 물과 인간 사이에는 다. 그리고 그 「무간(간격이 없음)의 근거를 천차만별이 모두 한 기운이라는 데서 찾았다. 이는 자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가 서로 하나의 전체라는 그의 세계관을 보여 준다.

작품 마무리

▶ 주제: 북벌론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관점은 과정에서 주제 의식을 표면화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아르신의 영명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승에서 되었으나, 마치 드넓은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배은 풀 같은 신세였지만,」 「꽃이 울다」, 「아름다운 바위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배은 풀 같은 신세였지만,」 「꽃이 울다」 등 대담의 형식으로 두 인물이 문답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바위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배은 풀 같은 신세였지만,」 「꽃이 울다」 등 귀신과의 대화라는 전기적 설정에 머물 수 없으니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아르신의 영명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승에서 되었으나, 마치 드넓은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배은 풀 같은 신세였지만,」 「꽃이 울다」 등 비유 「세상이 누추한 것만으로 허공의 부락을 받아 그의 무덤을 돌봐 주고, 절문을 통해 허공의 발언을 이끌어 낸다」 하 공(하공)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인물로, 사후에 「신이 흩어지지 않고 귀신이 되어 정 공 앞에 등장함.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북벌론의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인쇄 동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EBS 인물 관계도



EBS <보기>의 공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근거를 통해 해석 가능한 내용을 공식화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BS 연계 교재 <보기>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파고들기

학술지와 논문을 기반으로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작가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난도 <보기> 문제에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작품 마무리

작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작품의 주제, 서술상의 특징, 주요 인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학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해설 P.245

[일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양 부인에게 살 형제가 있는데, 말이 위요은 현숙한 반씨를 이사로 맞이 아들 흥을 얻는다. 위진의 아내 체씨와 위준의 아내 맹씨가 반씨를 모해하자 양 부인이 체씨를 친정으로 보낸다. 체씨의 부친 채 승상은 이에 분노하여 위요을 귀양 보내고, 양 부인은 체씨를 들이치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반씨가 시체를 붙들고 풍곡 혼절하니, 흥이 대경하여 수 죽을 주우르며 악물을 드리오니 이윽고 진정하게는, 흥이 위로 받는다.
 "모친은 진정하사 초상을 극진히 하소서."
 반이 마르니, 죽이 노 그 마오, 오게 언저, 친사(56)하세

고 발상'도 못하오니, 비록 아니 계시나 장차 장손이 발상'은 예문(禮文)에 당당하옵는, 그는 의논치 아니하시니 누구와 더불어 대상'하시나니가, 글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
 위진 형제 왈.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하였으나, 조그만 아이가 할 바가 아니라, 예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으니 불가하니라."
 모든 사람이 왈,
 "흥이 비록 어린나 소견에 이치가 있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어는,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마땅 대상하라."

기출 문제로 확인하기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작품의 바로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01 작자 미상 「임진록」

· 문제 P.030

정답 1. ㉠ 2. ㉡ 3. ㉢ 4. ㉠ 5. ㉡ 6. ㉣ 7. ㉠ 8. ㉠

2. ㉡
[정답 풀이]
 송정은 사명당의 신분이 '중'이라는 점에서 사명당을 가깝게 여기고 '상계(보통의 예법)로 대접'하려 한다. 반면 사명당은 자신이 '대사미(대장군)요 병영 사신'이라는 명분과 직위를 지녔음에도 '지방관인 송정이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명당은 동래 부사 송정이 병영 사신인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함을 알고 대례하여 송정을 처형하는데, 이때 제삼자가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② 뒷말에 사명당과 송정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1~4] 1306모평

작자 미상, 「임진록」

친절하고 자세한 정답과 해설

정·오답 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NTRO

고전산문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 2026 수능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P.010
- 2026 수능 P.011
- 2026 9평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P.014
- 2026 9평 P.015
- 2026 6평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P.018
- 2026 6평 P.019

- 01 작자 미상, 임진록 P.024
- 02 이현기, 포천이문 P.034
- 03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P.040
- 04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 P.049
- 05 작자 미상, 반씨전 P.059
- 06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P.070
- 07 심의, 대관재몽유록 P.077
- 08 작자 미상, 금방울전 P.084
- 09 작자 미상, 적벽가 P.098
- 10 작자 미상, 옹고집전 P.111
- 11 작자 미상, 옥단춘전 P.123
- 12 이광정, 김순부전 P.135
- 13 작자 미상, 인현왕후전 P.144
- 14 작자 미상, 황새결승 P.153
- 15 작자 미상, 금환기봉 P.162
- 16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P.171
- 17 백문보, 율정설 P.182
- 18 김금원, 호동서락기 P.188
- 19 김석주, 해갑와기 P.195
- 20 이첨, 응계설 P.200
- 21 정약용, 상론 P.204
- 22 이항복,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P.208
- 23 김시습, 고금군자은현론 P.212
- 24 박지원, 능양시집 서 P.216
- 25 이학규, 박꽃이 피어난 집 P.220
- 26 기대승, 장춘정기 P.224
- 27 허균, 한정록 서 P.228

혼자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2주 완성 추천 PLAN

훈련도감-E 수득정보 [고전산문]

DAY	날짜	작품	학습 CHECK
1	/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input type="checkbox"/>
2	/	01 작자 미상, 「임진록」 02 이현기, 「포천이문」	<input type="checkbox"/>
3	/	03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04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	<input type="checkbox"/>
4	/	05 작자 미상, 「반씨전」 06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input type="checkbox"/>
5	/	07 심의, 「대관재몽유록」 08 작자 미상, 「금방울전」	<input type="checkbox"/>
6	/	09 작자 미상, 「적벽가」 10 작자 미상, 「옹고집전」	<input type="checkbox"/>
7	/	11 작자 미상, 「옥단춘전」 12 이광정, 「김순부전」	<input type="checkbox"/>
8	/	13 작자 미상, 「인현왕후전」 14 작자 미상, 「황새결승」	<input type="checkbox"/>
9	/	15 작자 미상, 「금환기봉」 16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input type="checkbox"/>
10	/	17 백문보, 「울정설」 18 김금원, 「호동서락기」	<input type="checkbox"/>
11	/	19 김석주, 「해갑와기」 20 이첨, 「응계설」 21 정약용, 「상론」	<input type="checkbox"/>
12	/	22 이항복,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23 김시습, 「고금군자은현론」	<input type="checkbox"/>
13	/	24 박지원, 「능양시집 서」 25 이학규, 「박꽃이 피어난 집」	<input type="checkbox"/>
14	/	26 기대승, 「장춘정기」 27 허균, 「한정록 서」	<input type="checkbox"/>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최근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고전 소설(판소리 사설 포함)은 모두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었어. 특히 고전 소설 기출 지문의 상당 부분이 연계 교재에 실린 장면과 일치했기 때문에 체감 연계율은 더욱 높았을 거야.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고전산문에 대한 EBS 연계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먼저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지문과 문항들을 살펴 보면서 학습 방향을 잡아 보자.

2026 수능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아니리]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 들고 생각하니, 어디다 놓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 보는데,

[진양]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 하러 가라느냐. 삼대독자 네 아니나 장탄식 병이 든들 뉘 알뜰히 구완하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되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 휘여혀 날려 줄 이가 뉘 있더라 말이나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 하는 데는 수증인간이 얼러하면 잠기로만 위주를 한다.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십 리 사당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다는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마는 살려 두고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에 가지를 마라.

[아니리] “나라에 환후가 계옵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 있사오리까.”
 “네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마는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志氣)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으나, 네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었요.”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나오더니,

[중중모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兩主) 마주 떠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 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치지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치사를 못 잊어요.

[아니리] “그 말은 방불허나 뒤 진털발 남생이가 흠일세.”
 충충히 작별 후에 수정문 밖 썩 나셔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가관이었다.

(중략)

수능 [아니리]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 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요?”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뻗뻗하여 ‘토’ 자를 ‘호’ 자로다가 한번 불러 보는데,

“저기 주동이 벌근하고 얼송털송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요.”
 하고 불러 놓니 첩첩산중의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들고 내려오는데,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 쫓아지고 몸은 얼송털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적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르 헤치며 주홍 입 떡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서 흥흥흥 하는 소리 산천이 뒤엎고 땅이 툭 깨지나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혔을 때,

[아니리]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어 버린 쇠뿔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등글, 저리 보아도 등글, 우등글납작이나,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 퉁인가 보다, 하느님 퉁을 먹으면 만병통치 한다드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꼭 쥐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 부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이크,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허자구. 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 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일고.”

“네 저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요.”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한번 놀아 보는데,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요네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이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어 먹어 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나, 나 두꺼비요,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 회춘 명약(名藥)이라 두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르양,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맛을 것이 동의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만만 드는구나.

[아니리] 별주부가 한 꾀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어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라,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는 하루 일천오백 발 나오겠오,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 보라.”

[휘모리] 우리 수국 퇴락하야 천여 간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철컹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명의더러 물은죽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도리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나 쓸개 한 봉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게 있느냐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도리랑 도리랑.

[아니리]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 뺨 돌아노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압록강까지를 당도했었다. 거기서 제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그때에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대 내 정성을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목욕재계 정히 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 보더라.
 - 작자 미상, 「수궁가」 -

- *화상: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 여기서는 ‘토끼’의 그림을 이룸.
- *위방불(입):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말로, 「논어」에서 유래한 말임.
- *절행: 절개를 지키는 행실.
- *발: 길이의 단위.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함.
- *새납: 나팔 모양으로 된 우리나라 고유의 관악기.

[중모리] 그때에 사슴이 발론하되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 온갖 꾀가 다 생기고 산중에 수목이 없어 은신할 곳 없어지니 각기 의견 들어 보면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사오니 수령님의 좋은 꾀를 일러 주옵소서

[아니리] 호랑이가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두름을 피우며 오늘은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 토끼가 여짜오되

[자진모리] 사냥개라 허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毛族)으로 사람 집에 기식하니 제 무슨 아침으로 내 잘 말하는 자랑하여 심산공곡 층암절벽 찾고 찾아 들어와 동계 간 살해만 허니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잡수오면 그 덕이 모든 금수에게 미치오리다

[아니리] 호랑이 듣더니만 다 잡아 먹었으면 내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마는 일등 포수가 따러다녀 어설피 물라다가 조총에 불이 번듯 탄환이 쏙 나오면 거 내 신세는 어쩔 것이나

EBS 연계 [그때에 별주부 저기 토 선생 계시오 부른다는 것이 수로 팔친 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뺏뺏하여 토 자가 살짝 늘어져 호 자로 되었것다 저기 호 생원 계시오 불러 놓으니 첩첩산중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㉔**반기 들고 내려오느되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남고 동아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를 좌르르르 흘리며 주홍 같은 입 벌리고 흥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늘고 땅이 푹 꺼지란 듯 자라가 **㉕**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아니리]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것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둥굴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둥굴야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것다 옳다 이것 한 입가심 허여 볼까

자라가 **㉖**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

호랑이 깜짝 놀래 예끼 이것 보아라 도리춤치 속에 배암 잡아넣어 놓은 것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㉗**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로다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서 겁짐에 바로 일러 나는 명생이 자라 새끼요

[중모리] 호랑이 **㉘**반기 들고 일시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맛진 진미를 먹어 보자 으르르양 허고 달려드니 자라 듣고 **㉙**깜짝 놀래여 아이고 내 자라 아니요 이놈 그러면 무엇인고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니 너를 먹으리라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일이라 허니 너를 산 채로 먹으리라

[아니리]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이 동의 보감을 얼마나 통달하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허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야 내 목 나간다

호랑이 **㉚**깜짝 놀래 예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 명생이 무엇시오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로다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㉛**수궁 퇴락하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푹 떨어져 목으로 잘락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명의다려 문의한즉 호랑이 쓸개를 열 보만 먹으면 목이 즉효한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여어들며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아랫도리를 팍 물고 뺑 돌아 놓으니

[아니리] 호랑이 **㉜**질색하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그 육중한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을 허는디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원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나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팍 물었던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랏다 후다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단듯 조총에서 철환 단듯 오림에서 조조 단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맵다 뉘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가 뽕조름허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것다 예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㉝**세수람 고개에다 덜렁 올라앉아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랴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였다.
- ② 호랑이가 자라의 외양에 주목하여 관심을 보이자 자라는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 ③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
- ④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주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⑤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자라와 호랑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 ② ㉡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으로, 자라는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곳에서 이를 대비하였다.
- ③ ㉢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호랑이는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
- ④ ㉠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 공간이며, ㉡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다.
- ⑤ ㉠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며, ㉢은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예의를 갖춘 상대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 ② ㉡과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 ③ ㉢과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다.
- ④ ㉠과 ㉢는 동일한 주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다.
- ⑤ ㉡과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수궁가」는 우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발전한 작품입니다.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에 청중의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변모가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거나,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거나,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였어요.

- ①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에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③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에서,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④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 ⑤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 가'까지 댈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군.

고전산문

KEYWORD #임진왜란 #역사적 사실+허구적 상상 #인물들의 일화 제시 #다양한 이본 존재

작품 간추려 읽기

조선에서 조헌이 여러 재변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변란의 발발을 예언했으나 선조는 이를 듣지 않고 조헌을 함경도 감산으로 유배 보낸다. 왜국의 장수 평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은 명나라 원정에 길을 내어 달라는 핑계로 조선을 정탐한다. 당시 조선에서는 왜국에 김성일과 황윤길을 사신으로 보내는데 서로 다른 보고를 하여 조정이 혼란에 빠지지만, 선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

• 선조가 변란 징후를 보고 받았으나 변란에 대비하지 않음

임진란이 시작되고 선조는 이일, 신립 등에게 병사를 주어 왜군을 막으려 하지만 실패하자 도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란을 간다. 평행장(고니시 유키나가)은 한양을 점령한 후 평양으로 향하고, 가등청정(가토 기요마사)은 세자와 대군을 포로로 잡는다. 선조는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세자와 대군이 왜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다. 평양성마저 함락되고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승훈 등 수만 대군을 보내나 평양 전투에서 대패하여 퇴각한다. **순변사 이일은 왜군과 맞서 싸우지만, 대패하여 위기에 처한다.**

• 왜군이 침범하여 선조가 피란길에 오르고 명나라에서 보낸 구원병도 평양 전투에서 대패함

도사가 위기에 처한 이원익을 보고 신묘한 힘을 사용하여 조선군을 돕자, 왜군이 퇴각한다. 이후 한 군사에게 김응서를 천거 받은 이원익은 그를 찾아가 참전해달라 간청하고, 김응서는 부친상을 이유로 거절하다가 조선군에 합류한다. 김응서는 기생의 도움을 받아 **왜장 종일의 머리를 베고** **E 장면 풀어 읽기**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거북선과 화포를 앞세워 활약한다. 조원익, 정문부는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섬멸하고 사명당은 뛰어난 지혜로 가등청정을 꾸짖고 전국의 승병을 집결시킨다. 곽재우는 왜장 안국사의 대군을 대파하고, **0806모평** **【김덕령은 신출귀몰한 능력으로 가등청정의 부대를 위협한다.】**

• 김응서, 이순신 등의 영웅들이 전투에서 활약함

조선에서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자 황제는 이여송을 대장으로 삼아 십만 대군을 파견한다. 이여송이 선조에게 트집을 잡아 회군하라는 명을 내리자 선조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통곡을 하고, 이를 들은 이여송이 회군하라는 명을 거둔다. 이여송의 부대와 합세한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무찌르고 평양성을 탈환한다. 전라도 순찰사 권율은 해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쳐 전세를 역전시킨다. 명나라의 심유경과 왜장 평행장 사이에 화친 논의가 오가지만 결렬되고, 정유년에 왜군의 전선 수백 척이 다시 침략해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을 두려워한 왜군은 이중 첩자인 요시라를 이용하여 이순신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쓴다. 이에 속아 넘어간 조선의 조정은 원군을 삼도 수군통제사로 삼지만 크게 패하여 수군의 대부분을 잃는다. 이순신은 다시 삼도 수군통제사의 자리에 올라 열두 척의 배로 대승을 거두고, 평수길이 죽자 왜군은 퇴각을 결정한다. 노량에서 달아나던 적을 소탕하던 이순신은 적군의 총탄을 맞아 전사한다.

• 이여송, 권율, 이순신의 활약으로 왜군이 퇴각하고 노량대첩에서 이순신이 전사함

한편 진주의 기생 논개는 왜장을 유인해 강물에 함께 투신하고, 의병장 김덕령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는다. 강홍립과 김응서는 대병을 거느리고 왜국 정벌에 나서지만 복병을 만나 전멸한다. 왜왕은 강홍립과 김응서를 회유하고, 김응서는 왜왕의 회유에 넘어간 강홍립을 죽이고 자결한다. 후에 서산 대사가 왜국이 다시 침범할 것을 예견하고 **1306모평** **【제자인 사명당을 보내어 왜왕을 굴복시켜 항복 문서를 받는다.】**

• 강홍립, 김응서가 왜국 정벌에 실패하고, 사명당이 왜왕의 항복 문서를 받아 옴

이원익 왈,

“도적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이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왜군이 조선의 군사들을 하찮게 여겨 방심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이원익)

하고, 이일을 선봉(부대의 맨 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으로 삼아 고각(북과 나팔)을 울리며 나아가니, 왜장 평행장이 부장(副將)(부하 장수) 종일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 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십여 합(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횡수를 세는 단위)을 싸우더니(왜국 평행장의 부장 종일→조선 이원익의 선봉 이일) 이일이 패하여 달아나니, (싸움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이일) 종일이 따라 미치지 못하고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문득 한 ^{α1}도사(조력자-초인적 능력을 지님)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갈한 벌이 그려진 꽃 비녀)를 내어 두르며, 또 백옥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비현실적·전기적 요소) 이로 인하여 종일이 군사를 다 죽이고 황망히 성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나지 아니하는지라, (군사가 다 죽자 퇴각한 종일) 원익이 패군을 거두어 진을 치고 여러 장수더러 왈,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종일과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원익)

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왈,

“소인의 동리(마을)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α2}김응서라. 용맹이 남다르더니, 일일은 큰 범이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털미를 잡아 땅에 부딪쳐 죽이니, (김응서의 비범함과 용맹함이 드러남)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이더이다.”

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 왈,

“네 동리가 어디뇨?”

대답하여 왈,

“용강(龍岡)이라.”

하거늘,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가기를 청하니 응서 왈,

“내 재주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부친 상중(喪中)에 있으니 어찌하리오.”(자신의 능력 부족과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며 출전을 사양하는 김응서)

원익 왈,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나라의 형편) 위태하니 백성 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상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돌아보리오.”(위태로운 나라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득하는 이원익)

하며 가기를 간청하니, 응서 할 수 없이 영전(靈前)(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 놓은 자리의 앞)에 통곡하고 평복을 갈아입고 원익을 좇아 진에 이르니, (상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조선군에 합류한 김응서) 원익이 사랑하며 보검을 주어 연습하라 하더니, 하루는 응서 왈,

“소장(김응서)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 종일을 베어 오리니 장군은 일지병(한 무리의 병사)을 성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형세를 보아 접응하소서.”(평양성에 들어가 종일의 목을 베고 나올 테니, 병사들을 성 밖에 숨겼다) (자신의 상황을 봐서 나오라는 김응서)

• α1 도사의 조력

도사는 '복성화차'와 '백옥 호리병'으로 적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이원익을 도움



역사적 사건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한 서사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α2 실존 인물의 소설적 형상화

「임진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실존 인물이지만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서술되지는 않고 민중의 정서나 역사 의식을 반영해 변용되어 등장함



김응서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무신으로, 김응서가 기용된 과정과 활약상을 영웅적으로 각색하여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위안을 느끼게 함

하고 비수(예리하고 짧은 칼)를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순라군(순찰하는 일을 맡은 군졸)이 졸거늘,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수문군(성의 문을 여닫고 통행인을 단속하던 군졸) 십여 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었는지라, 응서 칼을 빼어 차례로 베고 문을 넘어가니(왜군들의 허술한 방비) 관중(關中)에 등축이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정히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의 시중을 들던 일)하던 ^{α3} 기생(조력자-평양의 논개로 불리는 기생 계월향)이 소피(소변)보러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 왈,

“어떤 사람이관대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냐?”

응서 왈,

“나는 이원익의 부장(副將)이러니 이제 적장을 죽이고자 하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나라를 위하여 적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왜국의 적장을 처단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는 김응서)

그 기생 왈,

“종일이 관중에 거처하되 ^{E1} 사면에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모서리)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이로써 불우지변(뜻밖에 일어난 재앙이나 사고)을 방지하며, 삼경(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경 후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새벽 한 시에서 새벽 세 시)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나니, (종일이 완전히 잠들) 이제 천비(기생이 자신을 낮추어 이름)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들을 탐지하여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오는지라, (종일이 잠들자 소리가 나지 않게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온 기생) 응서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장창 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에 누워 자거늘, (습격에 대비하여 창과 칼을 쥐고 자는 종일)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찌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앉으니, 종일의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머리가 베어진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는 종일의 비범한 면모 / 비현실적 요소) 응서의 군복 자락이 맞아 떨어지며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김응서가 종일을 처단함) 응서 내려와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오새, 그 기생이 울며 왈,

“장군이 소첩을 사지(死地)(죽을 지경의 매우 위험하고 위태한 곳)에 두고 가려 하느냐?”

하며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기생을 데리고 나온 김응서) 장중이 자연 시끄러워 순라군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며 고함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왈,

“네 손을 죽도록 놓지 말라.”

하고 칼을 두르며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왜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왈,

“네 간계(奸計)(간사한 꾀)로 우리 장수(중일)를 죽이고 감히 나가고자 하느냐.”

하며 달려들거늘, 응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E2}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김응서에 대한 여찬 / 과장된 비유) 평의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지금 바로) 성을 넘으려 할새, 비록 용맹하나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적을 대적하며 기력이 기진(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짐)한지라, 즉시 전대(돈이나 물건을 허리에 두르기 위해 만든 자루)로 기생의 허리를 매어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평수맹이 달려들어 한칼로 기생을 베고(무고하게 희생된 기생) 바로 응서를 취하거늘, 응서 대로(크게 화를 냄)하여 평수맹을 일 합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나느니라. 응서 도적 수습을 베고 성을 넘어 나오니, 부장 안일봉이 군을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응서를 접응하여(김응서가 평양성에 들어가기 전에 요청한 내용)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일이 진행된 경과)을 고하

• α3 이본에 따른 「임진록」의 내용 변이

기생과 김응서의 관계

- 단순 협력 관계
- 연인 관계

기생의 죽음

- 김응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
- 기생의 요구로 김응서가 죽이는 경우
- 왜병의 칼에 죽는 경우
- ...

• α4 기생의 조력

- 김응서에게 종일의 성격과 습관을 알려 줌
- 적장의 처단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



적장에 대한 정보와 지략을 제공하여 김응서가 적장을 쉽게 처단할 수 있도록 도움

• E1 왜장 종일의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을 드러냄

- 불우지변을 방지하기 위해 전후 좌우에 두른 비단 휘장 모서리마다 방울을 달아둠
- 적의 습격에 대비하며 밤중에도 깊은 잠에 들지 않으려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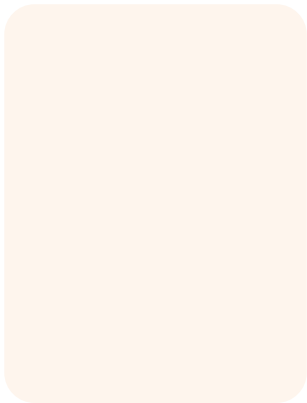


철두철미한 성격이 드러남

• E2 비유와 과장을 통해 홀로 많은 적군을 처단하는 김응서의 활약을 부각하여, 독자가 그에게 성원을 보내도록 유도함

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E 장면 돋보기 '임진의 기록'이라는 의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들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어. 그중 우리가 살펴본 장면은 기생의 도움을 받아 왜군을 격퇴한 김응서에 대한 이야기였어. 다만 이 작품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등장인물들의 실제 행적이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해 가공되거나, 역사적 사실과 달리 왜왕의 항복을 받아 내는 등 각색된 부분이 드러나는데, 이는 작품을 통해 전란으로 고통을 겪은 당대 독자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임진록」은 설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초현실적인 장면을 설정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안을 도모함	E 장면 풀어 읽기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문득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왜적에 패하여 도망가는 이원익을 '문득 한 도사'가 등장하여 도와주는 장면은, 설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당대 독자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하는 효과를 냄
「임진록」은 계층을 초월한 민족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왜적에 대항하는 민중의 활약을 비장하게 그려 냄	E 장면 풀어 읽기 '천비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들을 탐지하여 방울을 솜으로 막고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소서.'	기생이 일부러 '방울을 솜으로 막고 나오겠다'고 하며 김응서가 종일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데서, 왜적에 대항하는 민중 계층의 활약을 보여 주고 있음
「임진록」은 설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초현실적인 장면을 설정하여 비범한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을 형상화함	E 장면 풀어 읽기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찌고~종일의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종일이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비범한 인물을 홀로 처단하는 김응서의 영웅적 활약을 부각하고 있음
「임진록」은 임진왜란이 초래한 우리 민족의 비극을 그려 낸 작품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들을 애도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줌	E 장면 풀어 읽기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으려 할새~ 평수맹이 달려들어 한칼로 기생을 베고'	김응서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적군이 '한칼로 기생을 베'는 장면을 설정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들을 애도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음

• 역사 영웅 소설로서의 「임진록」

역사 소설은 역사의를 바탕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며, 그중에서 영웅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활약을 펼치는 이야기를 역사 영웅 소설이라고 한다. 고전 소설에서 역사 소설은 현실과 다른 방향의 사건 전개를 통해 외적에 대한 적개심, 지배층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임진록」은 임진왜란 당시 사건을 연대기적 구조로 그려 낸 역사 영웅 소설로서, 구국 영웅의 활약상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하여 전란으로 고통받은 백성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었다.

• 「임진록」의 다양한 이본

「임진록」은 향유층이 다양했던 만큼 이본 또한 매우 많다. 계층을 막론하고 온 백성이 겪어야 했던 전쟁의 경험은 전란 이후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다. 백성들의 실제 경험담과 목격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승자가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내용이 변주되고 분량도 달라졌다. 따라서 「임진록」의 다양한 이본은 전승자와 향유 계층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작품 마무리

▶ 주제: 왜적의 침입이 남긴 상처의 치유와 민족적 자긍심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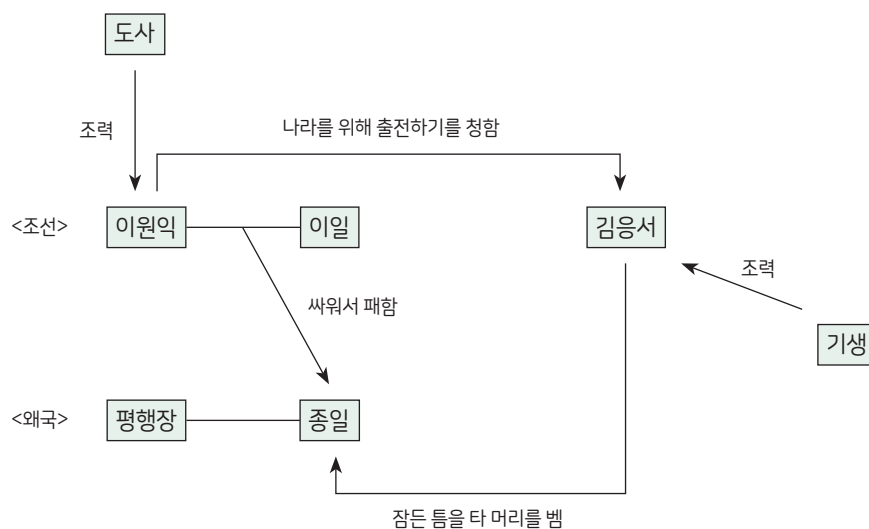
▶ 서술상의 특징

- 역사적 사건을 가공하여 허구적으로 재구성함
-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의 행적과 상황을 묘사함
- 실존 인물의 등장과 실제 지명의 사용으로 사실감을 높임 **근거** '평행장', '김응서', '용강', '평양성' 등
-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냄 **근거**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 지라.', '종일의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 과장, 비유 **근거**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 주요 인물

이원익	조선의 장수. 용맹이 뛰어난 김응서를 찾아가 왜장 종일을 제압해 달라고 간청함
이일	이원익의 선봉장으로, 왜장 종일과 맞서 싸우지만 패퇴함
도사	신묘한 힘을 사용하여 위기에 처한 이원익을 도움
김응서	기생 계월향의 도움으로 왜장 종일을 처단하고 왜국 정벌에 나섬
기생	김응서가 왜장 종일을 처단하도록 도왔으나, 다른 왜장의 손에 죽음
김덕령	신이한 재주로 왜군을 곤혹스럽게 했으나 간신들에게 모함을 당해 죽음
이순신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의 공격을 막아 냈으나 노량에서 전사함
사명당	서산 대사의 제자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왜왕에게 항복을 받아 냄
평행장	왜장. 종일을 내세워 이원익의 조선군과 싸우도록 함
종일	왜장 평행장의 휘하 장수로, 신묘한 능력을 지녔으나 김응서의 손에 죽음

▶ EBS 인물 관계도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든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
 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
 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벼이 여기
 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
 응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배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
 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
 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
 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
 어 만든 후 백탄을 띄같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
 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
 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
 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
 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
 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
 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
 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①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
 를 베어 상에 받쳐 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
 을 멸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
 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
 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
 고 방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
 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
 이 관백에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
 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이 천지진동하는지
 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향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향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
 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
 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추수하더니 문
 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
 지라.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혼(三魂)이 흩어지며 칠백
 (七魄)이 달아나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봉명 사신: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선참후계: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4.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곰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정답

- | | | | |
|------|-------|-------|-------|
| 1. ② | 2. ④ | 3. ③ | 4. ② |
| 5. ⑤ | 6. ① | 7. ② | 8. ⑤ |
| 9. ① | 10. ① | 11. ③ | 12. ② |

[1~4] 26수능

작자 미상, 「수궁가」

1. ②

| 정답 풀이 |

자라를 본 호랑이는 자라가 '이리 보아도 둥굴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고, '도리춤치 속에 배암 잡아넣어 놓은 것같이 생'겼다며 자라를 '한 입가심 허여 불까'라고 한다. 이에 놀란 자라가 '여보 당신이 누라 허시오'라며 호랑이에게 통성명을 요구하자, 호랑이는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라며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이후 자라가 '갑짐에 바로 일러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라고 하였으므로, 자라는 호랑이가 정체를 밝힌 이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사슴은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인간의 위협을 피할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으며 호랑이에게 '수령님의 좋은 피를 일러' 달라고 대책을 구하고 있다. 사슴에게 '수령 말'을 들은 호랑이는 '거두름을 피우'고,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볼 것을 권하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고 있다.
- ③ 별주부가 자라인 것을 알게 된 호랑이가 '먹어 보자'며 자라를 해치려 하자, 자라는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뚝을 길게 내놓으며' 호랑이를 '깜짝 놀'라게 한 자라는 자신이 '도리랑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며 호랑이에게 맞서고 있다.
- ④ 자라가 '호랑이 아랫도리를 팍 물'고 있자, 호랑이는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라며 애원한다. 이에 자라는 호랑이가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생각하고 있다.

⑤ 호랑이는 자라에게 '아랫도리'를 놓아 달라고 애걸하고, 자라가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자 '의주 압록강 가'로 도망간다. 그곳에서 '남생이 한 마리'가 내다보는 모습을 본 호랑이는 남생이를 '별주부로 알아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다고 한다. 즉 호랑이는 남생이를 자라로 착각하여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2. ④

| 정답 풀이 |

자라는 '토 선생'을 부르려다 실수로 '호 생원'을 불러 ㉠(이 산중)에서 호랑이와 대면하고, 호랑이는 '맛진 진미를 먹어 보자'며 자라에게 달려든다. 즉 ㉠은 자라가 이름을 잘못 부른 실수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 공간에 해당한다. 이후 자라는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자며 자신이 ㉡(수궁)에서 '도리랑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고 속여 호랑이를 위협하는데, 이에 '질색하여' 자라를 '별나리'로 부르는 호랑이의 모습에서 호랑이가 자라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에서 사슴은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인간의 위협을 피할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으며 공동의 문제를 언급하고, 이후 토끼는 '우리 모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호랑이에게 사람이 부리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족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자라와 호랑이가 화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자라는 호랑이에게 자신을 '수궁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라고 소개하며 ㉡에서 '영덕전 새로 질 제' 다친 목을 고치기 위해 '도리랑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며 내력을 밝힌다. 즉 ㉡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라는 산중에서 실수로 '호 생원'을 불러 호랑이와 마주친 것이므로,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에서 이를 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전라도 해남'에서 '의주 압록강 가'까지 뛰어간 호랑이는 그곳에서 본 '남생이 한 마리'를 '별주부로 알아 다시 함경도 ㉢(세수람 고개)까지 도망간다. ㉢에 도착한 호랑이는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며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은 자라를 피해 도망한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호랑이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 ⑤ ㉠에서 사슴과 토끼는 호랑이를 '수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라를 피해 ㉡으로 도망간 호랑이는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굶었'을 것이라며 다른 존재와 비교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 자신을 비교한 것은 적절하나, 이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05 작자 미상 「반씨전」

• 문제 P.066

정답

1. ① 2. ② 3. ① 4. ④ 5. ④
6. ① 7. ④

[1~3] 2010학평

작자 미상, 「반씨전」

1. ①

| 정답 풀이 |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양 부인은 '채씨를 들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위진이 양 부인의 유언을 어기고 채씨에게 부고를 알리려고 하자 흥은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 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고 소질의 마음에도 불가하니이다.'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② 시어머니인 양 부인의 부고를 듣고 온 채씨는 반씨에게 '나는 시댁에 득죄하여 본가에 있기로 존고께 통신을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 하리오.'라고 한다. 즉 채씨는 시댁에서 쫓겨나 본가에 간 이후에 시어머니인 양 부인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을 본가로 보낸 양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반씨는 웃어른인 위진을 대하는 흥의 태도를 질책하였을 뿐, 위진을 질책하지는 않았다.
- ④ 위진이 양 부인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장손이 상례를 주관하는 것에 반대하며 '일시에 피신'하자, 문중 사람들은 '상인(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를 피하니 더 있어 무엇'하겠느냐며 '상복 입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한다. 따라서 문중 사람들이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위진은 대상할 것을 주장하는 흥과 문중 사람들에게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형님에게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하였'으며, '형님이 아니 계시'므로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즉 위진은 장자인 위윤이 부재하는 상황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을 뿐, 장자인 위윤의 뜻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대상할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2. ②

| 정답 풀이 |

위진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흥에 대해 '너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듣'고서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까 소질이 사ړ된 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 하시니, 말씀이 옳사오면 따를 것이요, 비록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오면 따를 이유 없으니)에서 흥은 '비록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즉 ㉠은 흥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일 뿐,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 ① ㉠(채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내 계시니, 무슨 일로 알리지 아니하리오.)에서 위진은 '양 부인이 채씨를 친정으로 보낸' 일에 대해 '채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낸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알리지 아니하리오.'라며 채씨에게 양 부인의 부고를 전하려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흥은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에 당당하다며 자신이 상례를 주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위진은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하였으나,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에서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흥이 대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며 흥의 제안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흥과 문중이 모두 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위진 형제는 '우리는 예문대로 하리니 어찌 장자를 두고 대상하겠'나며 '일시에 피신'해 버린다. 이 모습을 본 문중이 '상복 입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하자, ㉢(숙부가 불의를 행하여 문중이 따로따로 흩어지니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오.)에서 흥은 '숙부가 불의를 행'했다며 위진의 행동을 평가하고, '문중이 따로따로 흩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겠'나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양 부인의 장례 이후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채씨와 맹씨는 '반씨 모자를 백 가지로 모해'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를 면치 못할지니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에서 반씨는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신과 흥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라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①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장자의 부재 시 장손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상을 행할 수 있다는 상례'에는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잘 나타나며, 뒷글에는 '장자의 부재 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위진은 '채씨를 들이지 말라는' 모친 양 부인의 유언을 저버리고 '채씨의 집에 가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고 한다. 이러한 위진의 모습은 장자의 부재 시에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일 뿐, 모친의 유언을 따른 것도, 수직적 위계질서를 따라 상례를 치르려고 한 것도 아니다.

| 오답 풀이 |

- ② 〈보기〉에 따르면 뒷글에는 '장자의 부재 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위진이 반씨에게 '상중에 시비를 돌' 운다며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위진이 가권을 차지하고자 하며, 반씨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은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문중의 공론과 예문을 따르도록 했'으며, 뒷글에는 '장자의 부재 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장손인 흥이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에 당당'하며, '금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뒷글에는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기존의 가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장례 이후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는 것을 통해 채씨가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채씨가 '네 그러면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라고 흥을 꾸짖는 것에서 이러한 욕망이 흥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뒷글에는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자 반씨가 흥에게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며 '산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가권이 위진 쪽으로 기울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7] 1204학평

작자 미상, 「반씨전」

4. ④

| 정답 풀이 |

'산곡'으로 피신하여 통곡하던 반씨 모자는 양부인의 청을 듣고 자신들을 구하러 온 노인을 만나 '길을 인도' 받고 '줄 같은 것들'을 받아 먹는다. 따라서 반씨 모자가 자신들을 도와줄 노인이 있음을 미리 알고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 ① 위흥이 '서당에서 글을 읽'던 중 홀연 들어온 이적선에게 밤마다 글을 배워 '일 년 만에 고금을 통하'자, 반씨는 이적선에게 '감격하여 사례하고자 하'지만 상대가 '밤에만 왕래하니 얼굴을 보지 못'한다. 즉 위흥과 달리 반씨는 이적선을 만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집에 불'을 내고 '두루 다니며 요란'한 이들의 모습을 본 위흥이 반씨에게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찾으니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에서, 도적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위진이 '사내중 이십여 인을 보내어' '너희는 반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상을 후하게 하리라.'라고 분부하는 것에서 반씨 모자를 해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반씨가 '친정이 비록 가까우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악인들의 모해를 받아 쫓겨 다니는 지금의 처지로 친정이 있는 마을(촌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④

| 정답 풀이 |

반씨는 꿈에 나타난 양부인이 '오래지 않아 액이 당도하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라며 위험에 처했음을 알려 주자 흥과 함께 여막에서 뉘(산)로 도망쳤으므로 천상계 존재가 위험을 알려 준 결과로 ㉠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반씨의 꿈에서 양부인은 피신처를 지정하여 안내해 주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 ① '옥경(천상계)에 득죄하고 인간(지상계)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천상계로 돌아간 양부인은 반씨 모자를 잊지 못하고 '태을께 청하여' 이적선을 보낸다. 이적선은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던 위흥과 만나 밤마다 글을 가르쳐 그의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이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 인물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적절하다.

EBS 연계 작품들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



현대시 편



고전시가 편



현대산문 편



고전산문 편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을 통해 연계 작품을 심도 있고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작품과 관련된 전 기출을 수록하여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도 연계 출제 대비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EBS 연계 공부법이 궁금하다면 '국어는 박광일' 유튜브의 관련 영상을 참고하세요.



숫자로 보는

도서출판 홀수



2014년

도서출판 홀수
설립 연도



340종

도서출판 홀수가
발간한 책 종수



200년↑

도서출판 홀수 직원들이
수능 국어를 연구한
시간의 총합



10년

끊임없는 개정과 개선으로
홀수 기출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여 온 시간



150만 부

도서출판 홀수
교재 누적 판매량



10만 건↑

홀수 기출 제작 시
참고한 수험생들의
Q&A 개수



1억 원↑

홀수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원한 금액



5,037명

홀수의 후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진
청소년의 수

정가 20,000원
ISBN 979-11-94350-51-4

